

군산형 일자리 실효성 모색

내일 전문가그룹 2차 토론... 상생협약 실행시스템 정립 주목

군산형일자리 전문가 그룹 2차 토론회가 열리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시상생협약의 주안점으로 21일 군산시 청년들에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후원을 받아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전문가그룹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선진적 임금체계를 도입한 적정임금 기준 마련 ▲원·하청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복지기금 조성 ▲임금 공동교섭으로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 등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핵심 상생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1차 토론회에서는 이종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의 '공동교섭의 이해와 절차'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 단장인 김현철 군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태주 행정사노위 상임위원, 민왕기 노사발전재단 전북사무소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 등의 전문가그룹과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노·사 대표들이 참석해 '클러스터 내 공동교섭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되는 2차 토론회는 지역 노동계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노·사 대표,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교섭, ▲공동복지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직무급 ▲적정임금 구조 등에 관한 지속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김현철 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사 모두가 공감하는 협약의 이행절차와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며 향후 실행시스템 마련을 통해 실제 협상에서의 시행착오와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교섭기간 단축 등의 군산형 일자리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10월과 11월 중에 격주로 4차례

의 토론과 속의 과정을 거친 후, 안전별로 최종 검토와 보완을 통해 공동교섭이 본격화되는 2021년 상반기까지 상생협약 실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수행 계열화를 통한 군산·새만금 지역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노·사간 원·하청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2024년까지 5,172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28만대 생산, 1,700여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군산시상생협약의 주안점으로 21일 군산시 청년들에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후원을 받아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전문가그룹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임준 군산시장 '시민과의 소통' 강조

강임준 군산시장이 시 간부회의에서 모든 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소통 추진을 지시했다. 군산시는 19일 오전 강 시장, 신현승 부시장 등 국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부 회의는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준비 철저 및 의회 소통을 강화,

읍면동 등 민원부서 복무태도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준비 철저, 고군산 군도 관광 계획 수립 추진, 성산면다우 하수 처리시설 설치 관련 사업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제적으로 지적되는 업무에 철저히 점검하고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시민 소통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단순 지정이 목표가 아니라 지정 이후에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강소연구 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해를 없애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독특하고 이색적인 숨은 보석을 찾아라"

익산시, 도시브랜드 공모전

익산시가 지역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숨은 보석을 찾아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익산이

보유한 최고의 기록, 시민 생활 속 이야기 등 일상을 담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발굴해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도시브랜드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인물, 자연/환경, 문화/체육/예술, 행정, 산업/경제, 건설/

교통, 건축, 교육/복지, 농축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없이 익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및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익산인의 숨은 보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인증패와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는 총 사업비 38억9,000만원(국비 16억, 시비 22억9,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익산 실내야구연습장을 건립한다.

익산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본격

실내체육관 인근, 38억9000만원 들여 내년 2월 준공

익산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야구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6일 총 사업비 38억9,000만원(국비 16억, 시비 22억9,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익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인근에 건립되는 실내야구연습장은 지상 2층, 연면적 2,137㎡ 규모로 내야 크기의 실내야구연습장과 체력단련장, 트레이닝실이 설치된다.

실내야구연습장은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난해 9월부터

실시설계를 하였고 익산시 야구협회와 KT 등 앞으로 시설을 이용한 관계자와 5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설계에 반영됐다. 앞서 시는 지난 달까지 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및 공용건축물 협의, 실시계획인가, 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실내야구연습장이 건립되면 기존 국가대표 야구장 및 보조야구장, 리틀야구장과 함께 지역 야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KT 2군 선수단 및 지역 생활 야구인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야구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왕원기자

"위기 극복위한 정책 신속히 마련할 것"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19일 제23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29건 등 36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례안은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 의원)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 의원)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강경숙 의원)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강경숙 의원) ▲익산시 주민 자율정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규 의원) ▲익산시 주민 자율정월 실천 조례안(최종오 의원)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

례안(유재동,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최종오, 한상욱 의원)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함동연 의원)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욱 의원) 등이다.

박철원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 이겨낼 수 있다. 시의회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차고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에 비발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실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 방역 활동에 힘쓰고, 손소독제 사용,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임시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고용위기 지원센터 취·창업 일자리 한마당

군산에서 '취·창업 일자리 한마당'이 열리며 취업준비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석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6일 AVON컨벤션센터에서 '취·창업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선별하는 채용행사를 진행,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홍보에서부터 면접, 채용까지 윈스톱으로 지원해 기업체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코로나 시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채용규모는 15개사 60여명(직접참여 6개사, 간접참여 9개사)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익산시 50만원상당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19일 총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82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의 운수종사자나 퇴직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1월까지이며 운수종사자 개인이 해당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신청하고 업체에서 이를 일괄취합하여 시에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기프트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퇴사자 또는 폐업업체 운수종사자는 개인별로 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현을 시장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